



## “나만의 악역 스타일 만들어져 뿌듯”

이종석, 영화 ‘브이아이피’ 서 특유의 눈빛연기 선보여 눈길

패션쇼 모델로 데뷔한 이종석(사진)은 2009년 드라마 ‘드림’의 단역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곱상한 외모에 어울리는 선한 역할을 주로 맡아왔지만, 23일 개봉한 영화 ‘브이아이피’에서는 연쇄살인마로 변신한다.

21일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연기에 대한 갈증이 컸다”며 “우연히 박훈정 감독의 시나리오를 접하고 내가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 출연하겠다고 자처했다”고 말했다.

“연기적으로 갈증을 느꼈어요. 드라마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영화에서는 제 입지가 작다고 느끼기도 했죠. 예전부터 남자영화, 누아르 장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초 같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이 영화는 누아르지만 제가 가진 이미지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이 영화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고위급 관료 자제가면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지닌 연쇄살인마이기도 한 김광일 역을 맡았다.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와 눈빛 연기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악역을 완성해냈다.

“보통 사이코패스나 살인마라고 하면 예상되는 연기 스타일, 공식 같은 게 있는데,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빼고 덜어 내서 최대한 담백하게 가려고 했죠. 예를 들어 미소를 지어오 사 이코패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희열을 느껴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아이 같은 해맑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이미지의 장점이기요. 억지로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그런 악역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의 악역이었기에 제가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8년간 연기를 해오며 내 작품을 보고 ‘잘했다’고 느끼

는 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 녹아든 것 같다. 모처럼 내가 연기를 좀 했다고 생각되는 영화”라며 “점수를 준다 면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웃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등 쟁쟁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그를 쫓는 경찰 채이도 역을 맡은 김명민은 그의 연기에 대해 “눈빛 하나, 표정 하나로 나를 놀라게 하더라. 정말로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해서 연기하기가 정말 편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종석은 “4년 전 영화 ‘관상’을 촬영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 선배들에게 많이 여쭙었다”며 “덕분에 세세한 표정부터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법까지 많은 ‘꿀팁’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8년간 연기생활을 한 그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다. 2014년 ‘닥터이방인’을 찍을 때였다.

“4회차 정도 찍은 상황에서 심하게 슬럼프를 겪었어요. 당시 연기에 대해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게 너무 가짜 같았거든요. 진짜 그 감정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연차가 쌓이면서 생긴 기술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피노키오’를 끝내고 1년간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았습니다.”

그는 ‘브이아이피’에 이어 9월 SBS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 안방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누군가에게 다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수지와 호흡을 맞춘다. /연합뉴스

## 괴수·액션·코믹 ... 내년 사극영화 기대

‘안시성’·‘창궐’·‘조선명탐정3’ 등 제작

조인성·현빈·장동건 등 톱 배우 총 출동

대형 사극영화 제작 붐이 일고 있다.

한동안 일제강점기 영화가 쏟아지더니,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로 무장한 사극들이 내년 개봉을 목표로 앞다퉈 제작되고 있다.

‘안시성’ 등 전쟁영화부터 ‘창궐’, ‘물괴’ 등 괴수와 액션을 결합한 영화, ‘조선명탐정3’ 등 코믹수사극까지 모두 사극이지만, 장르는 다양하다.

23일 촬영에 들어간 ‘안시성’은 안시성을 함락시키려는 당나라 50만 대군의 침략에 맞서 싸운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88일간 전투를 그린 초대형 전쟁 사극이다.

조인성이 양만춘 역을, 남주혁이 연개소문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고 안시성에 침투하는 학도병사 사물 역을 각각 맡았다. 박성웅, 배성우, 엄태구, 김설현, 박병은, 성동일, 정은채, 유오성 등도 합류했다. ‘짜라시 : 위험한 소문’을 연출한 김광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5개월간의 촬영을 거쳐 내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조승우와 지성의 연기 맞대결로 주목받은 ‘명당’은 지난 22일 크랭크인했다. 이 작품은 2명의 왕을 배출한 ‘천하길지 대명당’을 둘러싸고 왕이 되고 싶은 자들의 정탈전을 그린다. ‘관상’, ‘궁합’과 함께 역학 3부작으로 꼽히며 ‘인사동 스캔들’의 박희곤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최근 tvN 주말극 ‘비밀의 숲’으로 큰 인기를 끈 조승우가 풍수와 사주에 능통한 조선 최고의 천재 지관 박재상 역을, SBS드라마 ‘피고인’의 지성이 명당을 빼앗아 최고 권력가가 되려는 야심을 지닌 흥선군 역을 맡았다.

이외에 김성균, 백윤식, 문재원, 유재명, 이원근, 김민재, 강태오 등 쟁쟁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연예계 대표 미남 배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현빈과 장동건이 처음 호흡을 맞춘 ‘창궐’도 제작 중이다.

‘창궐’은 밤에만 활동하는 아귀의 창궐을 막고 조선을 구하려는 이형(현빈)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현빈이 왕 이조의 아들이자, 조선 최고 무공의 소유자인 이청으로, 장동건은 왕의 곁에 머물며 호시탐탐 왕권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는 병조판서 김자준으로 각각 출연한다.

780만명을 동원한 ‘공조’의 김성중 감독이 연출을 맡아 독창적인 비주얼과 새로운 스타일의 액션 오락 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전 흥부전을 재해석한 영화 ‘흥부’도 한창 촬영 중이다.

정우가 조선 최고의 대조소설자가 연흥부 역을, 김주혁이 백성을 돌보는 양반 조혁 역을 각각 맡았다. 영화 ‘26년’(2012), ‘남’(2014)을 연출한 조근현 감독이 진두지휘를 맡았



고, JTBC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의 백미경 작가가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김명민 주연의 ‘물괴’(허종호 감독)는 지난달 촬영을 끝내고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물괴’는 조선 중종 22년에 듣도 보도 못한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나라를 어지럽히자 왕의 부름을 받은 윤겸이 물괴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

김명민-오달수 콤비의 ‘조선명탐정’ 세 번째 시리즈도 내년엔 관객과 만난다. ‘조선명탐정’은 의문의 흡혈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봉진 명탐정 김민(김명민 분)과 조력자 서필(오달수)의 활약을 담은 코믹 어드벤처 탐정극이다.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주인공 김지원도 새로운 캐릭터로 합류했다. 1편과 2편을 연출한 김석은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이외에 조선을 배경으로 혼란스러운 정세에 맞섰던 검객들의 이야기를 그린 장혁 주연의 ‘검객’(최재훈 감독)도 현재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죽어야 사는 남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 보람있게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베		1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35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35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5 KBS 대기화 요리인류 도시의 맛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뽀글아 사랑해 3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5 앙코르 MBC 스페셜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40 죽어야 사는 남자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이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로봇이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브24 55 속보이신TV 인사이드	55 별버대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55 숨터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10 청춘의사들의 가슴 뛰는 항해 병원선에 타다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유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5 하하랜드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숨은 북한 핫기> 06:00 한국기행(재) <한여름, 동굴속으로 -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따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가난한 천정, 16년 동안 할 못한 머느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초밥 케이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덴마크, 행복을 드릴까요? 세상 끝에서 만난 바다, 스카겐>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IDF 2017 <저스트 키즈:키마루의 병아리>
12:30 EIDF 2017 <천사들의 합창:노르웨이 유치원> 14:05 EIDF 2017 <무스탕 가는 길>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따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니~4 19:00 사이언스 맥스 <물길의 상태>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 알타이산맥에서 만난 사람들>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 꿈꾸는 농부> 21:50 EIDF 2017 <고려 아리랑:천산의 디바> 23:35 EIDF 2017 <리처드 링클레이터: 꿈의 연대기> 25:15 EIDF 2017 <의식의 물리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음 7월 3일 癸未)
子	48년생 두 얼굴의 속성 사이에서 갈라져 심화 될 것이다. 60년생 드디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72년생 똑같은 정황이 반감아 가며 반복되는 형상이다. 84년생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박치를 가하라. 행운의 숫자 : 65, 01	42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을 것이다. 54년생 지금, 본때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66년생 복잡하여 가능하기가 애매할 것이다. 78년생 본격적인 캐드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90년생 미리 서둘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9, 50
丑	49년생 막상 임하고 보면 별 것이 아님을 알리라. 61년생 막혀있던 물고기가 트이리라. 73년생 민회할 수 있는 호기가 드래하고 있느니라. 85년생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정성을 다 하라. 행운의 숫자 : 40, 17	43년생 본래방이 진실해야 한다. 55년생 상대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하라. 67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것을 속 시원하게 처리하게 된다. 79년생 부수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된 요건에 충실하라. 91년생 결실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82, 27
寅	50년생 말 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62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 74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라. 86년생 맹목적이러면 오류를 낳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8, 70	44년생 부족하면 반드시 채워줘야만 하느니라. 56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68년생 불완전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살마리가 될 뿐이다. 80년생 불확실한 사실을 가 정하여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1, 76
卯	51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한다면 실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63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낳는다. 75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서 처리하여야 지장이 없을 것이다. 87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5, 57	45년생 비웃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범인을 명심하라. 57년생 사례를 참고한다면 도움이 된다. 69년생 사소함에 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라. 81년생 사정을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게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1, 64
辰	52년생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64년생 길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76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88년생 무리한 방법은 파헤쳐 순리적인 방법으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85, 51	46년생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니 이를 감안하고 임하라. 58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70년생 상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82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우 불편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5, 48
巳	53년생 상대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65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 77년생 별도로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리라. 89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리라. 행운의 숫자 : 34, 25	47년생 가끔씩 빠른 수단을 취하는 것이 국면을 타게 하는데 일조한다. 59년생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보라. 71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83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행운의 숫자 : 62, 0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